

‘에너지 수도’ 나주, 미래 에너지 전환 핵심거점 부상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포럼...시·국회·학계 공동 개최 한국에너지공대 중심 에너지산업 생태계 경쟁력 조명

나주시가 에너지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거점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최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미래 에너지 산업 발전 방향과 정책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포럼은 나주시와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황정아), 신정훈 국회의원, KENTECH 연구원이 공동 주최해 지자체와 정치권,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환영사에 나선 강상구 나주시장 직무대행은 “나주는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특화 도시다”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정책 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글로벌 에너지 선도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황정아 위원장은 “국제 정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에너지 주권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일자리, 핵융합,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에너지 강국 도약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에서는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 성과와 미래 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문일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 세션에서는 핵융합 에너지, 청정수소 활성화, 미래 에너지 교육 정책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나주시가 보유한 에너지 산업 생태계가 국가 에너지 주권 확보와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강상구 나주시장 직무대행은 “이번 포럼은 나주가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을 선도하는 중심 도시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



나주시는 최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제공=나주시청

나주시는 최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제공=나주시청

보성,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 호응...이론·실습 병행

위생관리·가공...“공유 주방 연계·사업화 지원”

보성군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체계적인 운영으로 농업인들의 높은 호응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9일 군에 따르면 보성군농업기술센터 주관인 이번 교육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기반으로 창업 인허가 절차, 위생관리 등 이론 교육과 젤라틴·차츰 주스 등 가공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실습 과정에서는 바나나·초코젤라틴이 시판 제품과 견줄 수준의 품질을 구현하고, 사과 차츰 주스 또한 원료 본연의 색과 풍미를 살린 결과물이 완성되는 등 교육 효과가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내 식품제조형 공유주방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 진행된 사용자 모집에는 12명 농가가 참여해 가공 창업 수요를 입증했다.

신청 품목은 동결건조 키위칩, 딸기 스프레드·젤, 작두콩 젤리, 방울토마토즙, 메밀랭이, 동결건조 딸기칩, 말차 양갱 등으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 식품이 포함됐다.

군은 교육과 공유주방 운영을 연계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이 초기 시설 투자 부담 없이 가공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교육에서 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교육생이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에서 사과 차츰 실습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보성군청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직접 제품을 제작하며 가공 창업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며 “공유 주방 운영과 연계해 가공 창업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강진, 소상공인 도약 지원사업 추진

성장지원금 300만원부터 사업화 최대 1억까지

강진군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2026년 소상공인 도약 지원 사업’ 참여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소상공인을 발굴해 지역 기반 로컬기업과 안정적인 소상공인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비즈니스모델 고도화와 사업화 전담을 지원하는 성장 단계 지원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이며,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이다.

신청은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성장 단계에 따라 ‘로컬기업 육성’과 ‘강한소상공인 성장 지원’으로 구분 운영된다. 초기 단계에서는 각 유형별로 500개사를 선발해 최대 300만원의 성장지원금을 지원하고, 이후 평가를 통해 사업화 단계로 연계되는 구조이다.

특히 로컬기업 육성 분야는 지역 기반 소상공인의 브랜드화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사업화 단계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

다. 강한소상공인 성장 지원 분야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되며 정부지원금 100%로 운영되는 점이 특징이다.

지원 내용은 신제품 개발,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브랜드 및 디자인 개선, 홍보·마케팅 등 사업화 전담을 포함하며, 전문가 멘토링과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단순 생계형 창업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기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이다.

선정 절차는 요건 검토와 서류평가를 거쳐 성장지원 대상자를 선발한 후, 권역별 평가를 통해 최종 사업화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사업화 지원금과 투자 연계 등 후속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역 소상공인을 로컬기업으로 육성해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진=이진욱 기자 sa4332252@gwangnam.co.kr

고흥 ‘2026대 드론쇼’ 재개 녹동항 일원서 내일 오후 9시

고흥 녹동항 일원서 11일 오후 9시 ‘2026대 규모 드론쇼’가 펼쳐진다.

지난 4일 강풍으로 연기됐다 재개되는 행사다.

이날 행사장에서 2026대 드론과 해상 불꽃쇼가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군은 대규모 인파에 대비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안전요원을 40명 이상으로 확대 배치기로 했다.

고흥 녹동항 드론쇼는 앞으로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상설 공연된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군민광장에서 별도 드론쇼가 개최된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2일 개막하는 ‘16회 고흥우주항공축제’도 관람객들의 관심이 뜨겁다. 축제 핵심 프로그램인 나로우주센터 발사장 견학 사전 예약은 총 3720명 규모가 모두 마감됐다.

‘우주의 신호(Space Signal)’가 이번 축제의 주제. 올해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에어쇼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한편 고흥군은 사전 예약하지 못한 방문객을 위해 별도의 현장 접수도 받기로 했다.

전체 인원의 30%인 1950명 규모다. 축제 기간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고흥=고준석 기자 city@gjdream.com



화순군은 최근 청사 소회의실에서 동강대학교와 파크골프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화순군청

화순군-동강대, 파크골프 활성화 ‘맞손’

현장 교육·군민 참여 확대...저변 확장 기대

화순군이 동강대학교와 손잡고 파크골프 활성화와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9일 화순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동강대학교와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화순파크골프장을 동강대학교 파크골프 교육 프로그램의 현장 실습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군민들에게도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관·학 협력을 기반으로 파크골프 저변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구복규 화순군수와 이민숙 동강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이호병 부군수, 관광체육실장, AI전략기획실장, 파크

골프리더학과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파크골프 힘찬 스윙! 그린 위의 행복 동행!’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파크골프가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건강 여가 문화로 자리 잡고 지역 주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화순에 마련된 대규모 파크골프 인프라와 동강대학교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전국 최대 규모인 87홀의 화순파크골프장은 2024년 10월 개장 이후 올해 3월까

지 약 23만명이 이용하는 등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은 이러한 수요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파크골프 활성화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현장 중심 교육과 군민 참여 확대를 통해 파크골프가 지역 대표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숙 총장은 “신실한 파크골프리더 학과를 통해 건강과 복지를 아우르는 통합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실무 중심 교육 환경이 마련된 만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육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영광, 범씨 온탕소독 ‘셀프이용센터’ 운영

고령·소규모 농가 지원...키다리병 예방 효과

영광군은 본격적인 벼 파종 시기를 앞둔 고령 농업인과 소규모 농가의 영농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업기계 셀프이용센터를 운영한다.

9일 군에 따르면 5월 31일까지 농업기계 셀프이용센터와 북부분소에서 범씨 온탕 소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벼 종자에 감염될 수 있는 키다리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온탕 소독은 60도의 온수에 범씨를 10분간 담가 병해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키다리병 예방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소독이 끝난 범씨는 즉시 찬물에 식혀야 하며, 균일한 소독을 위해 그물망에 담아 10kg 단위로 처리하는 것이 권장된다.

그동안 고령 농업인과 소규모 농가는 온탕 소독기 운반과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계 셀프

이용센터와 북부분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소독 서비스를 제공,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작업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센터 운영 시간은 농업기계 셀프이용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북부분소는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용을 원하는 농업인은 수반 함량 14% 이하의 마른 범씨를 준비해야 하며,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온탕 소독은 하루 처리 물량에 제한이 있는 만큼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농업기술센터는 예약제를 통해 이용 혼잡을 줄이고, 농업인들이 차질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고령 농업인과 소규모 농가가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98@gwangnam.co.kr